

■ **교회**는 오늘 '성소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늘 귀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 **부활 삼중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매일미사 33쪽 참조))

■ **주일 학교 및 영어 미사**

-교리 시간: 오전 10:30 - 11:20 (교육관 201호)

-영어 미사: 오전 11:30 - 12:15 (소성당)

■ **5월 성모성월**

- 5월은 성모님께 전구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성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성모성월입니다. 기쁘게 성모님의 은혜를 청하며 성모성월 기도를 바칩시다.

- 5월 미사 전 기도는 매일미사 181쪽 성모성월 기도문을 바칩니다.

■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지향(교중미사 30분전)**

- 세계 평화를 위하여

■ **5월 성경 통독**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5,1-6,20

■ **5월 2일 토요일 미사전례 : 꾸리아**

- 꾸리아 월례회의 5/2(토) 오전 9시 교육관 106호

■ **김영숙 안나 자매님 팔순**

-일시: 4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 **복가주 청년(Unitas) 미사**

-일시 및 장소: 5월 2일(토) 오후 5시, 본당

■ **향심기도 일일 피정**

-일시: 5/4(월), 9 AM - 7 PM, San Damiano Retreat

-강사: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 **2026 유니타스(Unitas) 복가주 청년 피정**

(Bay Area Korean-American Young Adult Retreat)

- 일시 : 6월 19일(금)-21일(일)

- 장소 :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 신청 : retreat.unitasbayarea.org

- 참가비: \$220(until 5/24), \$280(after 5/24)

- 문의 : unitastretreat@gmail.com 이가은 모니카

■ **본당 수입/지출 현황**

- 3월 본당 재정 보고

- 26년 1월~3월 수입/지출 누적

*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 **모임 및 회의**

- 리치몬드: 4월 26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구역장 회의: 5월 10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5월 10일 오후 2:00 교육관 106호

- 샌리앤드로; 5월 10일 오후 1:30 교육관 201호

- 라스모어: 5월 10일 오후 1:30 교육관 107호

■ **밥나눔 안내**

- 메뉴:고등어 조림(차리디아), 비지찌개(이베로니카), 육볶음(박세실리아), 소고기 미역국(이요안나), 브리실킷 바베큐(미아마가렛), 묵밥(염파트리샤), 잡채(송아네스), 해물부추전(이아네스)

*오늘 김영숙 안나 자매님이 팔순을 맞아 밥나눔 티켓 5장씩 드립니다.

- 다음번 밥나눔: 5월 3일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 (오일공-삼철오- 오일사찰)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 마리아, 정화봉 로사,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황정숙 말찌나, 천혜수 아네스, 임윤택 루시아 브루사아론조 발바라,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김육자 마리아, 임희숙 세트리다, 이수인 안드레아, 조지현 안젤라, 권영섭 요셉 하숙연 베로니카, 신재극 스테파노, 이기석 보나벤투라, 김영숙 안나

■ **기도와 미사를 위한 성당 이용 안내**

미사 전 기도와 고해성사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한 미사 중 분심을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교실에서 성당으로 통하는 문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성당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당 입구 홀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당은 울림이 큰 구조로, 작은 소리도 내부에 크게 전달됩니다.
 3. 미사 전에는 휴대전화가 반드시 무음 상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4. 장계를 내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신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본당 청소(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문의 : 이덕용 안드레아(오일공-칠칠삼-사삼팔삼)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카타리나(4/29)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수어 미사는 농인들이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는 신앙 통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는 모국어로 미사를 드리며, 하느님 말씀을 모국어로 듣는다. 하지만 '소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듣는 사람들, 농인(청각장애인)에게는 모국어로 미사를 드리기 쉽지가 않았다. 모국어로 말하는 원어인 사제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년 전 첫 농인 사제 박민서 신부(베네딕토-서울대교구 에파타본당 주임)의 탄생은 신앙에 목마른 농인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그리고 지난해 두 번째 농인 사제 김동준 신부(갈리스토-에파타본당 보좌 겸 애화학교 교목)가 탄생했다.



“소리가 없어도 하느님의 사랑은 들린다”

어떤 이들은 '미사를 본다'는 말을 두고 미사에 대한 정성이나 마음가짐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농인에게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농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를 '봄'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손(手)으로 말씀(語)을 듣는다. 수어의 세상에서는 미사를 '보는' 신자야말로 누구보다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자다.

“수어는 농인들에게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감정을 담은 '모국어'입니다. 수어 미사는 농인들이 통역 없이 하느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신앙적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 신부는 “농인은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므로, 전례의 모든 요소가 신앙 전달의 핵심”이라며 “시각적 정성을 다해 농인들이 눈으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신부도 “에파타본당에서는 모든 성사와 전례가 수어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농인 신자들이 자신의 언어인 수어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박 신부가 서품받을 당시만 해도 농인은 '사목적 배려의 대상'이었다. 혼자서는 미사 참례도 어려웠고, 공동체와 함께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김 신부의 말처럼 박 신부의 활동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농인 신앙공동체에 활기가 더해졌다. 농인은 스스로 전례 봉사를 하게 됐고, 본당 사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사목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됐다.

무엇보다 첫 농인 사제의 탄생은 농인 신자들에게 “우리도 사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언어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다”는 선교 의지를 심어줬다.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소도 싹텄다. 김 신부가 사제의 길을 걸었을 때 무작정 찾아간 사람이 박 신부였고, 그 인연이 두 번째 농인 사제 탄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김 신부는 “박 신부님 덕분에 교회의 변두리에 있던 농인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 더 깊이 활동하게 됐다”며 박 신부님의 길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농인 사제의 탄생, 희망을 전하다

“앞으로 농인 사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첫 농인 사제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농인 사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박 신부의 서품이 농인도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김 신부의 서품은 농인 사제는 박 신부만의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또 다시 얼마든지 농인 사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었다.

두 신부는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지만, 동시에 전국 농인 신자에게도 절실한 농인 사제다. 전국 농인공동체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박 신부의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 많았다. 또 청인(聽人,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본당이나 단체를 찾아야 할 일도 많았다.

박 신부는 “농인 사제의 존재는 교회가 모든 민족과 언어, 상태를 초월해 하나임을 보여주는 징표”라며 “사제직이 신체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달려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더 넓은 포용성을 갖추게 한다”고 전했다.

다름을 넘어 함께하는 공동체로

김 신부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지고 있고, 장애를 지닌 분들을 더 성숙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느껴진다”면서도 “사회에 비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다소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전히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분위기도 벽이다. 농인을 비롯한 장애인을 '도움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자세는 장애인을 '우리와 다른 누군가'로 만든다. 농인도 '우리 중의 한 명'으로 자연스럽게 섞이는 교회, 본당의 이름 '에파타(열려라)'처럼 활짝 열린 교회가 두 신부의 바람이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닌 '은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각기 다른 아름다움으로 빚어 내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향해 함께 '에파타!'라고 외칩시다. 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넘어선 더 깊은 하느님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주일학교(학생)	총
미사참례인원	32	170	9(3)	211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주일학교	Rice Bowl								
[교무금] 전윤자(5-6), 최경숙(3-4), 김옥준(3-4), 차영화(3-6), 채성일(3-4), 김관수(1-2), 전진영(1-3), 최삼남(4), 손순옥(4-5)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4/26(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4/26(일)	생	성당 봉사자들 가정	김상실 가롤로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조현석 프란치스코	김상실 가롤로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학철 요한 가족	명모니카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박호영 헬레나	명모니카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강시구 안드레아 가정	양무열 미카엘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이영길 안드레아	양무열 미카엘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스		생	이기하 비오	양무열 미카엘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RON LWIN		생	김경년 베드로	양무열 미카엘
	연	박정희 올리엠타	김원덕 시몬		생	송아네스	이로사
	연	천성배	천다니엘				
	연	김청수 바오로	김용찬 프란치스코	4/28(화)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유낙양 베로니카	가족		생	이인국 Justin	이선희 막달레나
	연	윤 Dana 요한	가족	4/29(수)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이만알로시오	유��피로메나		연	김아레 카타리나	염파트리샤
	연	김정탁요셉/김화순안나	가족		연	권요셉	권마가렛
	연	양정욱 요셉	가족		생	이연 베드로	이욱경 글라라
	연	김영자 모니카	가족		생	이영 크리스티나	이욱경 글라라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문환 베드로		생	이 준비오	이욱경 글라라
	연	장민우 베난시오	이로사		생	이 라일라	이욱경 글라라
	연	장민우 베난시오	전데레사				
	연	임태빈	명모니카	4/30(목)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기혜숙 세레나	양무열 미카엘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연	김아레 카타리나	대건회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김아레 카타리나	염 파트리샤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강시구 안드레아	5/1(금)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김아레 카타리나	김엘리사벳		생	이인평요셉	이선희 막달레나
	연	김아레 카타리나	이명란 아네스				
	연	김아레 카타리나	양안나	5/2(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아레 카타리나	유윤미 리디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아레 카타리나	이정연 골롬바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아레 카타리나	김상실 가롤로		연	장민우 베난시오	송아네스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4/26(일)	생	권영섭 요셉	이 에스터		연	김아레 카타리나	염파트리샤
	생	도미니크 김	김원조도미니크		연	임우생 요셉	최명주 잼마
	생	김영선 안젤라 가정	김엘리사벳		연	본당 선종 연령	선종봉사회
	생	김영문 루시아	김엘리사벳		연	이남희 세레나	이바오로 가정
	생	이필형 필립	이에스터		생	이한진 미카엘	이바오로 가정
	생	조승훈 안셀모	조용숙 카타리나		생	이명국 바오로 가정	이바오로 가정
	생	황혜정 데레사	이정연 골롬바		생	최잼마 수녀님	염파트리샤
	생	김베드로/안나 가정	이정연 골롬바		생	한윤정 아가다	최명주 잼마
	생	김상실 가롤로	김상실 가롤로		생	김태용 요한	최명주 잼마
	생	채성일 토마스	김상실 가롤로		생	김예빈(Abygale)	익명

<p>Samuel Kim 건강 보험 전문 메디케어/메디칼 처방약 보조. ACA 무료상담 (510)418-0243 samkim515@gmail.com CA Lic. #4474816</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 DRE #01851957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